

국경없는의사회는 조직 내 학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말,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열 번째 에볼라 유행 대응 활동에 참여한 여러 단체의 직원 일부가 학대 및 착취 행위에 가담했다는 조사내용이 보도됐습니다. 이 중에는 국경없는의사회와도 연관성을 보인 증언이 있었고, 이에 국경없는의사회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조직 내 학대 행위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지난 20년 동안 매년 학대 예방 및 관리 전담팀에서 처리한 신고 및 조사건에 대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제에 대해 투명하게 소통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이에 따라 최근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2020년 말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으나, 동시에 사안의 심각성이 증대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계기로 보다 구조적인 차원의 개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언론매체의 독자적인 조사에서는 콩고민주공화국 에볼라 대응에 참여한 여러 지원 단체간 학대가 만연한 내부 체재에 대해 언급했으나, 국경없는의사회는 당시 해당 사건에 관한 보고나 경고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직원 모두에게 열려 있는 학대 예방 및 관리 전담팀에 접수된 불만사항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국경없는의사회는 기존 국제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효과적이라 인식된 국경없는의사회의 신고 메커니즘에 결함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면밀히 검토해보았습니다.

두 단계에 걸친 대응

국경없는의사회는 상호 보완적인 두 개의 대응책을 시행했습니다. 먼저 전담팀이 다른 국제 단체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내부 조사에 착수했고, 해당 조사는 2021년 10월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심층적인 '윤리 의식 검토'를 실시해 △에볼라 유행 등 긴급구호 현장에서의 국경없는의사회 직원 행동 △학대 예방·관리 메커니즘의 효과성 △긴급구호 현장의 개인 및 단체가 마주한 윤리적 문제 등을 검토했습니다.

윤리 의식 검토 절차에 속력을 내기 위해, 콩고민주공화국 북키부 베니(Beni) 보건구역에서 진행된 10 번째 에볼라 대응 활동 당시 활동한 국경없는의사회 직원 총 62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사전 인터뷰 23회를 실시한 후, 219건의 익명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설문 결과를 회수해 검증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 후, 베니, 고마(Goma), 킨샤사(Kinshasa) 지역에서 90회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두 단계에 걸친 대응으로 개인적 수준에서의 학대 사건이 총 24건 발생한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 중 13건이 성비위 사건이었으며, 대부분 일자리를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성학대와 기타 형태의 개인적 학대 사건 15건은 전부 조사를 마쳤습니다. 세 건은 학대의 근거가 명백해 가해자에게 엄중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한 건은 학대의 근거가 존재했지만 가해자로 의심되는 인물이 현재는 국경없는의사회 소속이 아닌 관계로 소재 파악이 불가능했습니다. 두 건은 학대의 근거가 없었고, 일곱 건은 정보 부족 또는 피해자의 요청으로 조사를 중단했습니다. 나머지 두 건은 다른 단체와 연루되어 있어 해당 단체 조사위원회로 인계했습니다. 다른 개인 및 조직의 학대 사건에 대해서도 국경없는의사회의 내부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몇 개월 이내 종결될 예정입니다.

면밀한 진단과 시스템 개선

국경없는의사회는 조직 내 학대 행위에 대한 예방 및 제재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에 신고된 사건을 조사하고 관리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현장 활동 체계 전반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검토 과정이 시사한 교훈은 명확합니다. 학대의 위협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를 경감하기 위한 행동을 취한다는 측면에서 국경없는의사회의 활동 방식은 대체적으로 건설적이라는 평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고와 관련해서는 장애물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일부 사건은 국경없는의사회 내부적으로 다뤄야 하는 반면, 현지 환경이나 국경없는의사회가 활동하는 지역사회와 관련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까지 인식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 해결해야 합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다음의 책임이 있습니다.

- 1) 단순노동직 등 신고 체계를 활용할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취약한 직원을 더욱 잘 보호해야 합니다.
- 2) 국경없는의사회가 지원하는 각 지역사회에 맞춤형 인식제고 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 3) 관리직 및 채용팀 등 조직 전반에 걸쳐 성비(性比)의 균형과 다양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4) 긴급구호 현장에서 대규모 채용을 진행할 때 채용 절차에 있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5) 학대 문제와 관련하여 국경없는의사회가 지원하거나 협업하는 다른 단체와의 열린 대화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2022년 4월 25일부터 6월 25일까지 국경없는의사회는 위 교훈을 콩고민주공화국 에콰테르(Equateur) 주에서의 에볼라 대응 활동에 적용했습니다. 에콰테르주에서 활동한 국경없는의사회 직원은 약 30명으로 비교적 작은 규모였으나, 직원 및 국경없는의사회 지원 의료시설 직원을 대상으로 인식제고 및 학대 예방 교육을 진행했으며, 콩고민주공화국 보건부와 체결한 파트너십 계약에 국경없는의사회 행동서약을 포함했습니다. 학대 신고 메커니즘 또한 반복적으로 강조하여 문제 발생시 이러한 행위를 인지한 모든 관계자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조직 내 학대 행위의 예방·발견·제재에 있어 구조적인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콩고민주공화국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국경없는의사회 직원 간의 활발한 소통과 논의를 촉진할 것입니다.

인도적 지원 활동 중 발생한 학대 행위에 대해 최근 몇 년간 이루어진 토론은 이러한 노력을 견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앞으로도 이러한 투명하고 건설적인 논의에 참여하여 더 많은 이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학대 행위를 예방하고 제재하는 데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며, 가해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없는 완벽한 단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국경없는의사회가 근 20년 동안 조직 내 학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 같이, 앞으로도 이를 예방하는 데 우리는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